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 사제, 보제, 수도자들과 모든 충실한 자녀들에게 보내는
모스크바 및 전 루시 총대주교 키릴의 부활절 서신

주님 안에서 경애하는 주교님들, 존경하는 사제들과 보제들,
하느님을 사랑하는 수사들과 수녀들 그리고 친애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을 복돋고 크나큰 영적 권능으로 가득 찬 이 인사말로써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위대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거룩한 빠스하 대축일을
축하드립니다.

교회의 전통은 이 날을 ‘축일 중의 축일’, ‘축제 중의 축제’라 부르는 것을
우연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과 희망의 굳건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인간의 변모와 새로움, 영원한 생명의 빛,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기쁨의 원천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적들인 죄와 죽음을 떨하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허물었으며, 우리를 악의 권세로부터 구하셨습니다.

세르비아의 성 니콜라오스는 구세주의 부활을 찬미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모든 인류가 최초부터 최후까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승리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승리는 인간을 갈라놓았고 지금도 갈라놓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승리만이 마치 태양과 같이 그 아래에 서있는 모든 이에게 밝은
빛을 쏟아냅니다.” (담화집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의 복음』 중)

이는 곧 구원을 갈망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라면 누구나 죄에 대한
승리를 거머쥐고, 사도 성 요한 복음사가의 말처럼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1 요한 3:1).

우리가 빠스하를 경축하는 것은, 고대 히브리 민족이 수세기에 걸쳐
이집트에서 겪었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옮겨감을 기뻐하며
지켰던 구약의 빠스하 과일절처럼 단순히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빠스하 부활절은 이와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구해주시고(루카 1:79),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슬픔에 잠긴 갇힌 자들을 자유의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끄셨나니,
환호하시며 그들을 낙원의 높은 정상으로 인도하셨도다.” (찬가 제 38 편)
시리아인 성 에프렐의 이 감동적인 노래말은 빠스하의 신비, 곧 인간이 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신비의 깊은 체험을 표현합니다. 악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의 힘으로 악과 싸우고, 회개와 기도, 그리고

성체성혈성사에서 구세주의 몸과 피를 영함으로써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로와 함께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로마 8:11)

그리스도의 빠스하는 이 세상의 부패에서 벗어나,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으로 나아감을, 우리 창조주이시며 속량자이신 그분과의 일치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구원의 잔을 감사히 받아들이며(시편 115, 4), 교회가 우리에게 내어주는 불멸의 참된 양식과 음료, 곧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과 자비의 행위로 끊임없이 주님을 찬미하며,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하느님의 일에서 이루는 바가 때때로 과부의 렵톤 두 닢(마르코 12:42)처럼 약소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노고가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음을 인식하고서(1 코린토 15:58) 우리 내면에서 견고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합시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구세주께 찬양과 영광을 바치고, 서로서로를 사랑으로 안아주며, 사라지지 않는 빠스하의 기쁨을 우리 삶의 여정에서 하느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며,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증언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2025년 그리스도 부활 대축일

모스크바 및 전 루시 총대주교 키릴